

사회

# “현실 무시... 학생들 학원 내모나”

### 시교육청 '교육활동 개선안' 교사·학부모 반발

### '실력 광주' 학력저하·생활지도 부작용 우려도

“수준별 심화반 편성을 금지하고 야간자율학습 시간을 밤 10시로 묶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졸속책입니다.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보내는 결과를 부를 것입니다.”

광주지역 고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16일 광주시 교육청이 밝힌 방과 후 야간자율학습 운영시간 대폭 단축 등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개선방안에 대해 “학생들을 사실상 방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광주의 한 고교 교장은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고교 3학년생을 밤 10시에 집으로 돌려보내 스스로 공부하라는 얘기지만, 집에서는 긴장이 풀려 다

시 책상에 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학생은 물론 부모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위 30%내 학생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 공부하겠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학교에서 관리해주지 않으면 성적은 내기 어렵다는 게 교육계의 상식”이라며 “교육청이 힘있게 아이들 공부시키려는 교사의 의욕을 더 이상 꺾지 않았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오는 3월부터는 광주 시내 학원들의 교육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방과 후 학생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학습 밖에 없다.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공부를 관리해주길 바라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은데 아무런 대책 없이 집으로만 돌려보내는 게 능사는 아니다”며 “부모들에게 밤늦게 까지 아이들의 학습을 챙기고 공부부 시키라는 것은 무리”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청의 처사를 비난했다.

수준별 심화반 폐지에 대해서도 비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고교에서 운영중인 심화반은 학업 성취도에 따라 반을 고정하는 우열반이 아니라, 기말, 정기 고사 성적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상·중·하반이 바뀌는 가변 형태다. 학생들의 성적을 고루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교과부에서 도입하는 교과별 이동 수업제와 유사하다.

한 고교 교사는 “심화반을 폐지하면 교사들은 중·상위권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게 돼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이 학생들은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일선 고교에서는 학생들이 오전 7시20분께 등교한 후 밤 10~11시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해온 만큼 학원 등 사교육 시장에 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고교 야간자율 학습의 경우 1, 2학년은 토요일과 공휴일 전면금지, 3학년은 오후 5시로 제한됨에 따라 학생들이 사교육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고교 교사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교육정책이 성공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사교육 조장이나 생활지도 문제 등이 당장 제기될 것”이라고 새로운 부작용을 우려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드라이버 하나 때문에”

### 모터안에 30cm짜리... 영광원전 5호기 잦은 고장 불러

최근 발생한 영광원전 5호기 고장 원인은 전동기(모터)안에 들어 있던 드라이버 때문인 것으로 잠정 밝혀졌다.

16일 영광원자력본부와 영광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 발생한 영광 원전 5호기의 발전 정지 원인을 조사한 결과 원자로 냉각재 펌프(ICP) 구동용 모터 안에서 약 30cm 길이의 ‘일(一)자’ 드라이버가 발견됐다.

이 드라이버는 모터의 고정자와 회전자 코일 사이에서 발견됐으며 원전 측은 이 드라이버 끝 부분이 회전자 쪽 코일에 닿으면서 쇼크가 발생해 발전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했다.

ICP 구동용 모터는 한번 설치하면 원전 수명(40년)이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고가의 정밀

기계로 원전 측은 모터 안에 드라이버가 들어간 경우를 조사하고 있다.

원전 측은 모터를 분해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2002년 5호기 시운전 당시 제조사의 하자·보증 기간에 작업자 실수로 드라이버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전자 오일이 고정자로 새는 문제가 발생해 모터를 분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광 원전 5호기는 지난 2002년 5월 상업운전 개시 이후 현재까지 총 16건의 고장이 발생하며 원전 측은 이 드라이버 끝 부분이 회전자 쪽 코일에 닿으면서 쇼크가 발생해 발전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했다.

ICP 구동용 모터는 한번 설치하면 원전 수명(40년)이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고가의 정밀

# 나원침 (8246) 김종두



# 견인업체에서 돈 받은 북구 공무원 3명 입건

광주북부경찰청은 16일 견인업체 대표로부터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건넌받은 북구 소속 공무원 김모(52)씨 등 3명과 견인업체 대표 이모(39)씨 등 4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북구 차량견인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휴가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견인업체가 수년간 모구청 견인업무를 대행한 점으로 미뤄 관리·감독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은 경찰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kwangju.co.kr

# “호의를 악행으로 갚다니”

### 식당 주인 주민에 주차장 개방했다 낭패

식당을 운영하며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해주던 30대 부부가 어느날 주차장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자주 이용하던 대학생이

### 아끼던 진돗개 마구 폭행

### “실망 넘어 이전 무서워”

지난해 초 광주시 남구에 갈국수집을 연 이모(39)씨 부부. 평소 돈버는 곳 못지않게 인심을 얻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던 이씨 부부는 차량 3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식당 주차장 문을 항상 열어왔다. 식당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었던 것.

지난 14일 오전 9시께 어느 때처럼 식당 문을 열기 위해 출근한 이씨 부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식당 안쪽에 묶여 둔 자신의 진돗개 2마리가 누군가에게 심하게 두들겨 맞아 온몸에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 진돗개들은 이씨 부부가 다가와도 겁에 질린 채 시선을 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식당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지켜보던 이씨 부부는 다시 한번 경악했다. 평소 자주 주차장을 이용하던 20대 대학생이 파라솔 쇠파이프를 든 뒤 진돗개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곧장 이 대학생들을 용의자로 지목했고, 식당에서 불과 50m 가량 떨어진 곳에 사는 광주모 대학 2년 허모(24)씨를 붙잡았다. 허씨는 경찰에서 “새벽에 주차를 하던 중 진돗개들이 찾아 넘어지는 바람에 화가 나 쇠파이프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허씨는 진돗개들을 10여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당한 진돗개 1마리는 턱뼈가 부러져 음식물을 전혀 먹지 못하는 상태다.

광주남부경찰청은 16일 진돗개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허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허씨가 자신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동물을 폭행한 점을 토대로 동물보호법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日本 대학생들 가야금 배우기

전남대 국제겨울캠프에 참가한 일본 대학생들이 16일 오후 전남대 음대에서 가야금을 익히고 있다. 지난 9일 한국을 찾은 일본 국사관대학·아미가타대학 등 4개대에서 참가한 23명의 학생들은 다음달 4일까지 한국 문화를 배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전공의가 수련의 ‘군기잡기’ 폭행

### 서부경찰 30대 입건

광주서부경찰청은 16일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련의에게 주먹을 휘두른 전공의 박모(34)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께 전남 모 병원 혈액투석실

에서 후배인 수련의 장모(32)씨의 가슴을 한 차례 주먹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장씨의 고소로 경찰이 조사한 결과 박씨는 이날 자신에게 교육을 받던 장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차 2대 등 1억대 리베이트 부산서 대학병원 간부 검거

제약업체 대표로부터 편의제공을 대가로 승용차 2대를 포함해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제공받은 대학병원 간부가 검찰에 달미를 잡혔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16일 배임수재

# “사장과 친한데 맥주·돈 달라”

### 편의점 종업원 상대 신종 금품 사기

### 가짜 통화하며 속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업주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가는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20분께 광주시 서구 한 편의점에 40~50대 추정되는 한 남성이 들어왔다.

이 남성은 당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 이모(19)양에게 “인근 노래방에서 왔는데 ××맥주 50병을 달라”고 말했다. 잠시 뒤 냉장고를 확인한 이양이

“7병 밖에 없다”고 대답하자 이 남성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보이며 업주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후 이 남성은 휴대전화로 “20만원만 빌려가겠다”고 말하는 등 업주와 통화를 했다.

눈 앞에서 업주와 통화까지 하는 것을 목격한 이양은 고소란히 20만원 건넸다. 그러나 이 남성은 업주와 전혀 친분이 없으며, 통화도 가짜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편의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을 토대로 165cm 가량의 키에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한 달아난 용의자를 쫓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내 여동생을 왜 여관에 업고 가?”

# 성대발

○...만취한 여동생이 여관에 업고 가는 남자친구를 우연히 발견하고 격분해 손찌검을 한 진오빠가 경찰서로.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구모(22)씨는 16일 새벽 1시10분께 광주시 동구 소재 동 A여관 입구에서 술취한 자신의 여동생을 업고 여관에 들어가려 하던 정모(23)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 차례 때렸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구씨는 친구와 귀가 중 정씨가 자신의 여동생을 업고 여관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 주먹을 휘둘렀는데, 경찰에서 “남자친구라면 술취한 여자친구를 ‘암전하’ 집에 데려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흡식을 품은 것 같아 괴상했다”며 벌금.

/양승현기자 yang@kwangju.co.kr

#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 9급 공무원 시험 [국·공·민]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8:00 (2개월 완성)

**9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회복지, 농업기술직

강의시간: 08: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시간 4시간)

**9급 문제풀이**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경찰직/교정직

강의시간: 09:00 - 14:00 (4주 완성)

**법원/경찰직**

강의시간: 09:00 - 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명강사진 출출강

**9급 야간반**

강의시간: 19:00 - 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특별반

**농업직/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률 배출!

**명품 "강력단과"**

영어, 국어, 행정학, 행정법, 국어, 헌법, 화학, 경제, 교목학

강의시간: 15:30 - 18:30 (2개월 완성)

**합격률 소망직 (전문)**

시험장과 동일, 채점속도가 도입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시간 4시간)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http://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개강  
매월  
1일